

청소년들 앞장 장기기증 문화 확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청소년 대상 생명나눔 홍보단 모집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택)가 청소년들의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택트 2기'를 모집한다.

앞서 본부는 지난 5월 청소년들이 생명나눔의 주체가 되어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생명의 존엄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온택트 1기'를 발족해 고등학교 생 14명이 수료한 바 있다.

온택트 1기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지난 7월 28일부터는 온택트 2기 단원 모집을 시작했다. 2기 단원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은 9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향후 두 달간 자신의 SNS를 통해 장기기증과 관련된 콘텐츠를 알리는 생명나눔 매진자로 활약하게 된다. 또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기족(이하 도너패밀리)을 만나 생명나눔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는 특별한 기회도 가지며,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는 콘텐츠를 기획해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포레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생명나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온택트 단원에게는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기관 위촉장 및 수료증 발급, 소정의 활동키트

제품과 우수 단원 포상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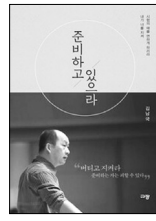
온택트 1기로 활동한 김나원 양(19)은 지난 7월 10일 1기 수료식에서 "온택트 1명이 국민 0.1%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온택트 1,000명이 모이면 국민 100%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모두 바뀌는 그날까지 온택트 활동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본부 교육사업팀 안시아 간사는 "온택트 활동이 청소년들이 장기기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명나눔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택트는 전국 17세~19세 청소년 중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청소년이나 생명나눔을 널리 알리고 싶은 청소년, 다양한 재능으로 개인 SNS를 통한 장기기증 홍보가 가능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5일까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www.donor.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교육사업팀 02-363-2886, PL@donor.or.kr)

신간 안내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준비하라! 이 책은 환난과 재앙을 이기는 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환난과 재앙에 초점을 맞춰서 두려움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그저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 비유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려고 한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찾아보려고 한다. 성도는 성경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완벽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무서운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살아 계신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재앙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저자: 김남국 |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21-08-09 | (135*195)mm 256p | 판매가: 15,000원

성경과 그리스도인



성서학자인 R.W.L. 모벌리 교수는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인 이유와 믿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성경이 비슷한 시기에 쓰인 다른 고대 문서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며, 잘 알려진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또한, 이를 통해 성경이 궁극적인 진리를 품는 책이라고 믿고 믿어들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수십여 년간 연구하고 가르친 저자의 통찰력이 주요 학문적 논의와 제시된 사례를 통해 신앙에 대한 강력한 논증으로 빛을 발한다. 본서의 주된 논의는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신뢰할 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원리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왜 신앙과 성경이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저자/역자: R. W. L. 모벌리/정은찬 | 출판사: 요단출판사
발행일: 2021-07-16 | (152*225)mm 304p | 판매가: 17,000원

약속의 말씀들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말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의 큰 복을 받는다. 당신의 마음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랄게도 믿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며 축복한다. 이제 아래에 기록된 기도문을 믿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과 입술(말로 고백해 보기 바란다. 그 순간 영생(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허락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신다. 이 책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는 주례할 성구 모음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전도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 김영석 목사 편역 | 출판사: 나침반
발행일: 2021-07-15 | 신서판 288p | 판매가: 8,000원

교회의 소명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레슬리 뉴비긴의 삶과 사역이 빛어낸 선교적 교회론을 마이클 고한이 탁월하게 정리하고 발전시킨 책이다. 현대는 '후기 기독교 사회' 혹은 '탈(탈)기독교 세계'로 규정되지만, 교회에 대한 질문은 과거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의 문제들과 관련해 더 근본적 답변을 요구한다. 이제 교회론은 기독교 사회를 전제현상의 탐구가 아니라 전통과 현실에 대한 질문, 실천과 성경적 원형에 대한 숙고를 필요로 한다. 학문과 목회에서 평생에 걸쳐 레슬리 뉴비긴을 연구하며 따른 마이클 고한은, 뉴비긴에 대한 전문적 연구였던 20여 년 전의 박사 논문을 뛰어넘어, 뉴비긴의 저작뿐 아니라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던 강연 및 발표 자료들을 활용하여 더 넓은 대중을 위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내놓는다.

저자/역자: 마이클 고한/이종인 | 출판사: IVP
발행일: 2021-07-20 | (140*210)mm 420p | 판매가: 22,000원

아름다운 마지막 유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CTS 인터내셔널과 하나은행 업무협약식 가저

2010년에 CTS에서 설립한 비영리(NPO)단체인 CTS 인터내셔널(이하 CTS, 이사장 감경철)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7월 27일(화) 오후 3시 CTS 13층에서 업무 협약을 가졌다.

양사간에 이뤄진 이번 협약은 기부신탁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를 출범하고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시장을 선도하며 많은 경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하나은행은 고객어 신탁 등을 통하여 CTS로 기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CTS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지정된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

박준서 CTS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사회적으로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교 사명을 위해 유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늘 어나고 있는데 두 기관의 협약을 통해 이러한 분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하나은행 서부영입본부 이현숙 지역대표는 "2010년부터 시작한 유산신탁 경험을 토대로 CTS에 유산



상속과 폭 넓은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더 많은 기부문화가 확산되며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 인생 마지막 선교 인민으로 유산을 후원하

는 후원자들은 'CTS 레거시클럽'에 가입되며 CTS 사옥에 마련되어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 사진과 핸드프린팅을 제공하며 가족과 후손들에게 또 다른 유산을 남길 예정이다.

월드비전, 베이루트 폭발사고 1주기 맞아 레바논 지원 요청

심각한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증가, 자원 위기 등 위기 처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은 베이루트 폭발사고 1년이 지난 현재, 심각한 경제난으로 레바논 아동들이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4일 우려와 함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폭발로 207명이 사망하고, 30만여 명이 집을 잃었다. 이에 월드비전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60여 채의 집과 10개의 학교를 수리, 4,700명의 아동과 보호자에게 심리사회적 지원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바논은 통제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가계 부채 증가,

식량·연료·의료 시스템 및 전력 부족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현재 레바논 전체 인구 680만 명 중 절반은 빈곤 상태에 놓여있으며, 그 중 100만 명은 아동이다. 유엔은 약 150만 명의 레바논인과 4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약 3억 달러(한화 약 3천 6백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레바논을 향한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레바논의 경제와 금융위기는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야기됐으나, 지난해 폭발로 수도 주요 시설이 파괴되면서 위기가 더욱 가속화했다. 레바논은 현재 정치

불안정, 대규모 시위 확산, 코로나19 대응행으로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레바논 월드비전 한스 베타스키 회장은 "레바논이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극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위기는 아동과 가족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은 바로 아동들"이라며 "코로나19 학교도 봉쇄해 교육조차 받을 수 없어 미래의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월드비전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레바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손길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레바논은 이와 함께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과 27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도 수용하고 있다. 국민 1인당 난민 수용 수 기준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으로 꼽힌다.

월드비전은 소득중대 사업을 중심으로 레바논에서 장기 지역개발사업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49만 명의 아동을 포함한 89만 명의 레바논 국민과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이 월드비전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월드비전 조영환 회장은 "월드비전은 지난 1년간 베이루트 폭발로 삶을 잃어버린 이들을 도와왔다"며 "베이루트 폭발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미래마저 빼앗아버렸다. 앞으로도 분쟁과 폭발 이전 아름다웠던 레바논의 모습을 복구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살, 네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

아빠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직업



저자 김재현 목사

산업혁명의 표본을 연 것은 신대륙의 발견으로 설명되는 항해술의 발달과 무역의 발달이었다. 당시 아프리카와 인도에 막혀 아시아로 가는 항해는 멀었지만, 콜럼버스에 의한 항해술의 발달로 무역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어서 동양에 밀리는 무역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우리는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제2차 산업혁명은 기계·기원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대를 말하는데, 이때의 선두 주자는 단연코 영국이었으며, 영국이 주도한 제2차 산업혁명은 제국주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이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당하는 국가가 되어 오랜 동안 신음을 해왔다. 그런 피해를 입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그다음 일어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의 발견과 컴퓨터의 발명,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발달을 통해 정보 기술 시대가 된 현재를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제3차 산업인 정보기술의 혜택을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선도는 나라이고 되면서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전환기를 맞은 산업 시대를 일컫는 말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드론과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그리고 3차원 인쇄에



나노기술의 도입 등 6개 분야이다.

그 특징은 매우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이 예견하기에, 인공지능(AI)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인공지능 스스로 지능이 발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특이점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된다고 한다. 특이점 이후 인류는 인공지능에 의해 멸종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나노로봇의 도움을 받아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한다.

16살, 꿈 많은 청소년이 주인공이 될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대부분과 선행하는 직업의 대부분은 필요가 없거나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부터 '체질의 물결'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이해하고 관심 분야를 정해 차근차근 공부해나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저자: 김재현 | 출판사: 대경북스
150*220mm 320면
정가 16,000원 발행일 2021년 1월 12일
구입문의 02)485-1988